

소문난 잔치에 먹거리 풍성... IPO 업은 스톡옵션 '동실'

공모시장 대어 스톡옵션 차익 화제
카카오게임즈 1인당 차익 5.5억 ↑
소득세·주가하락 여부 주의해야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신관로비 전광판. 카오게임즈 상장 첫날 시세가 게시되었다. /한국거래소

기업공개(IPO) 시장이 흥행을 이어가며 예비 상장사들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잔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등 공모시장 대어들의 우리사주나 스톡옵션 평가차익이 알려지면서다.

한동안 스톡옵션 제도를 예전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었으나 이젠 분위기가 달라졌다. 전문가들은 발행주식 대비 스톡옵션 물량이 많다면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IPO 기업들의 스톡옵션 부여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정해진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행사기간에 회사 주식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행사가격보다 주가가 올라야 수익을 내는 만큼 성과 창출의

욕을 높이고 퇴사를 방지할 수 있다. ◆공모주 대어들의 스톡옵션 잔치... '벼락부자' 한 순간

카카오게임즈의 성공적인 데뷔와 함께 스톡옵션과 우리사주를 부여받은 임직원들의 평가 차익이 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공모시장 기대주로 함께 거론됐던 SK바이오팜의 선례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SK바이오팜은 지난 7월 상장 직후 주가가 크게 오르자

우리사주 차익 현금화를 위해 수십 명이 무더기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거래일(11일) 코스닥시장에서 카카오게임즈는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하며 8만1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공모가 2만4000원을 3배 이상(237.92%) 웃돌며 코스닥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섰다.

덕분에 스톡옵션을 행건 임직원들은 돈방석에 앉았다. 카카오게임즈는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임직원 총 443명(중복 포함)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자사주 차익은 5억5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우리사주 물량(152만2088주)을 통해서도 계열사 임직원들과 함께 추가 차익을 얻게 됐다.

시선은 벌써 다음 공모주 흥행주자로 꼽히는 박히트엔터테인먼트로 향한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박히트엔터테인먼트의 임직원 3명이 33만6000주의 스톡옵션을 보유 중이다. 스톡옵션 주당 행사가격은 주당 1063원으로 희망 공모가 범위(10만5000~13만5000원) 1% 정도다.

공모가 상단으로만 따져도 450억원,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처럼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할 경우 1180억원에 달한다. 시장에 '스톡옵션 잔치' 얘기가 나도는 이유는 그래서다.

◆투자자도 스톡옵션 물량 확인해야
물론 스톡옵션이 모두에게 잔치는 아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소득세도 만만찮다.

스톡옵션은 기타소득세로 분류된다. 근로자라면 차익의 6.6~46.2%, 퇴직자는 22%(소득세율 20%+지방소득세율 2%)를 징수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비상장 단계에서 상장을 위한 구색을 갖추기 위해 무리하는 경우도 다반사인 만큼 주가가 행사가격을 밑도는 경우도 많다"며 "카카오게임즈 같은 대박신화 사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역시 스톡옵션 리스크를 염두에 뒀다. 발행 총주식수 대비 물량이 많으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IPO 기업들의 스톡옵션 물량을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스톡옵션은 상장 후 보통 주로 전환 가능한 희석 가능 주식으로 물량이 많다면 경영권 위협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며 "상장 이후 권리 행사 시점에서 대량 매물이 쏟아지면 투자자의 보유 가치도 떨어진다"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사면초가 배동욱, 잔여임기도 간담간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비대위 '탄핵카드' 초강수
노조, 단체행동·총파업 불사

소상공인연합회 내홍의 당사자인 배동욱 현 회장이 갈수록 '사면초가' 상태다.

자칫 전임 회장으로 물려받은 약 10개월의 잔여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자리를 내 줘야 할 판이다.

배 회장의 '츄판·술판' 워크숍 주도, 본인 가족 일감몰아주기, 보조금 유용 및 공문서 위·변조 의혹 등에 반기를 든 비상대책위원회가 '탄핵 카드'라는 강수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합회 사무국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배 회장이 최근 단행한 조직개편안에 반기를 들며 '수용 불가'로 맞서고 있다. 노조는 단체행동을 통해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배 회장에 대해 '임중 경고장'을 날렸다.

1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15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배동욱 회장 해임'을 안건으로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당초 지난달 말께 임시총회를 열고 배 회장의 탄핵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만만치 않아 2주 가량 숨고르기를 하다 더 이상 미뤄둘 수 없어 총회 날짜를 다시 잡았다.

연합회 정관은 ▲고의나 과실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 ▲본회의 업무추진을 방해하거나 임원간 분쟁을 야기해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곤란하게 할 때 등의 이유로 회장을 포함한 임원 해임을 총회에 불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4월24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 당선된 배동욱 회장이 당시 당선증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비대위는 츄판·술판 워크숍으로 인한 조직 명예 실추, 가족에게 일감몰아주기, 사무국 흔들기 등 배 회장이 지난 4월 임기 이후 보여준 각종 업무 전횡이 해임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관에 따르면 정회원 과반수 이상이 모이면 임시총회가 성립되고, 참석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비대위측은 총 57곳인 소공연 정회원 중 이번 총회에 의결정족수인 29곳 이상이 참가하고, 이 가운데 '과반 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총회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배 회장의 업무는 정지된다.

소공연 노조도 강수를 두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배 회장은 지난 7일자로 사무국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소공연 노조 장기수 위원장은 "배 회장이 배임, 횡령,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일방적으로 조직 개편을 밀어붙였다"면서 "이 과정에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강등시키고, 홍보팀은 해체하는 등 노조를 와해하고 조직을 잠악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배 회장이 이를 끝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배동욱 회장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는 확인서를 들고 있다.

까지 밀어붙일 경우 총파업 등 단체행동도 예고했다.

노조는 또 이에 앞서 배 회장이 소공연 회원 가입 당시 사업자 등록증을 위·변조했다며 경찰에 추가 고발을 했다. 노조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후 감사를 진행한 중기부에도 고소란히 전달을 했다.

이처럼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는 배 회장이 당초 예정된 내년 2월 임기를 채우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당장 비대위 총회가 15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의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배 회장이 가져분신청 등을 추가로 제기하지 않는 한 회장 자리를 더 빨리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2014년 탄생한 소공연이 설립 전후에도 적지 않은 산고를 겪었는데 이를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면서 "이번 사태로 소공연이 또한 번 큰 상처를 입은 만큼 구성원과 회원들이 결속을 통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소상공인의 유일한 법정 단체'라는 명분에 걸맞게 재탄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HMM 초대형선 12척 출항... 亞·유럽 운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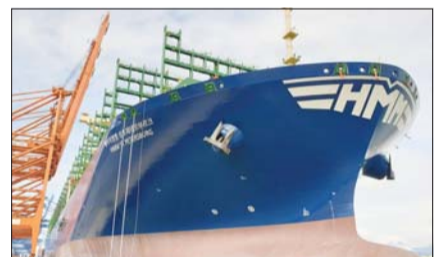
1·2호선 12항차 연속만선 행진
"안정적 물류환경 조성 최선"

대한민국 대표 원양국적선사 HMM(현대상선의 새이름)은 2만4000TEU급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12척을 아시아-유럽항로에 모두 투입했다고 13일 밝혔다.

HMM이 11일 삼성중공업에서 인도 받은 12호선 'HMM 상트페테르부르크호'는 부산을 시작으로 중국 등을 거쳐 유럽으로 항할 예정이다. HMM은 지난 4월 알헤시라스호를 시작으로 약 5개월 동안 1~2주 간격으로 대우조선해양(7척)과 삼성중공업(5척)에서 총 12척을 인도 받았다. 아시아 마지막 기항지 출항 시점을 기준으로 1~10호선 모두 만선을 기록했다.

11호선 트라브르호와 12호선 상트페테르부르크호는 현재 아시아 역내를 운항 중이다.

1호선 알헤시라스호와 2호선 오슬



부산 신항만 HPNT에 입항하고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호.

로호는 유럽에서 복귀 후 재출항한 두 번째 항차에서도 만선으로 출항했다. 이는 12항차 연속 만선 행진이며, 시장에서 초대형선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배재훈 HMM 대표이사는 "초대형선이 투입되기 전에는 일부 우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글로벌 마켓에서 초대형선의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들과 상생발전하는 안정적인 물류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국내 주요기업 18%, 번 돈으로 이자도 못내"

전경련 한계기업 비중 조사

지나해 국내 주요기업 100개 중 18개가 3년 동안 번 돈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한 '한계기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체 기업 가운데 '한계기업'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가운데 5위권에 해당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OECD 가입 24개국을 대상으로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기업 중 한계기업의 비중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17.9%로 조사 대상 국가 중 다섯 번째

로 높았다고 13일 밝혔다.

OECD 평균 한계기업 비중은 12.4%로 우리나라가 5.5%포인트 높았고, 한계기업 비중이 가장 적은 일본(1.9%)보다는 16%포인트 높았다.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7년 15.4%에서 지난해 17.9%로 2년새 2.5%포인트 증가했다. 증가폭으로 따지면 조사 대상 24개국 중 6번째로 컸다.

미국, 캐나다, 스페인, 그리스의 경우 작년에 우리나라보다 한계기업 비중이 높았지만 같은 기간 증가폭은 더 작았다.

/양성운 기자